전북교육청, 시애틀한국교육원 국제교류 결실

한국어로 소통, 전통문화로 공감

어린이 여름캠프 · 교원 연수
교육 · 문화 융합 지속가능
국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주 벨뷰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와 시애틀 한국교육원에서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원 주관 어린이 여름캠프 및 한국어교원 직무연수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미국 시애틀 한국교육원 주관 어린이 여름캠프 및 한국어교원 직무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주 벨뷰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와 시애틀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시애틀 한국교육원의 요청으로 전통문화 강사와 한국어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사를 지원했다.

이번 캠프에는 시애틀 지역 초등학생과 한글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한국어 수업과 함께 태권도, 북청사자놀이, 한지공예·매듭 만들기 등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 발음과 표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으며, 역사와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부모와 교원들 역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져 현지 한글학교 등록 희망자 증가와 공립학교 한국어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 글로벌 브릿지 캠프 참여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우정을 다졌다.

교원 연수는 한국어 교수법, 문화 수업 설계, 에듀테크 활용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수에 참여한 현지 교원들은 한국어 수업 자료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전북교육청과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수업 개선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져 한·미 간 교육 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워싱턴주 벨뷰 교육감, 뉴포트 하이츠 초등학교장, 시애틀 총영사가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한국어와 전통문화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과의 장기적 협력에 기대를 표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시애틀 여름캠프와 교원연수는 단순한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매개로 학생과 교원이 세계와 연결되는 기회를 더욱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사)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 5~9일 5일간 전주·부산 일원에서 '2025 고려인 미래이음 국제포럼(K-NEXT: FUTURE LIN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 세계 고려인 청년들 모국 땅에서 뿌리 만나다

전북대-KGN 공동 주최 '미래이음 국제포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청소년·청년들이 전북대에 모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사)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이사장 채예진)와 공동으로 지난 5~9일 5일간 전주·부산 일원에서 '2025 고려인 미래이음 국제포럼(K-NEXT: FUTURE LIN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 동포 지원 활성화와 및 다문화 특화교육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전북대 글로컬대학추진사업단과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가 지난 5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열린 첫 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만 15세부터 25세까지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및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청년 약 80명이 참가했다.

전북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와 함께 교수진들이 직접 참여해 학과의 면면을 안내했다. 내년 유학생 전용 학부로 문을 여는 남원글로컬캠퍼스 소개 등 진로 탐색과 한국 유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고려인 역사 특강과 진로 설계 워크숍,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등도 운영돼 참가자들의 정체성 확립과 역량 향상을 도왔다.

특히 참가자들은 전주한옥마을 탐방과 한복 체험, 전통공예와 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부산으로 이동해 감천문화마을, 오륙도 스카이워크, 해운대 등에서 현대 도시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문화 교류의 밤' 행사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나누며 국제적 유대감을 높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전북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 국경수 단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서로 연결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고려인 청년들과의 동행, 그리고 다문화 교육 협력의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채예진 KGN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흩어진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결의 장"이라며 "이곳에서 맺어진 인연과 경험이 한국과 세계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증 과정 개설

전북대, 지역 최초로 교육과정 개소… 27일까지 전주 소재 캠틱종합기술연구원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1일 지역 최초로 국방사업관리사 국가 자격증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4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K-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체계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11~27일 13일간 전주 소재 캠틱종합기술연구원에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국방기획관리 제도 △프로젝트관리 △계약제도 등 총 28개 과목이 포함, 실제 국방사업 실무에 필요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압축적으로 다루는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전북대는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과 협력해 방위산업융합전공을 운영중이며, 내년도 1학기부터는 국내 최초의 '첨단방위산업학과' 학부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강은호 교수(전 방위사업청장)는 "전북대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까지 운영하게 돼 방위산업 인력양성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K-방위산업의 핵심 대학으로서 국가 방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환경보건센터, 임산부 대상 환경보건교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현)는 지난 8~9일 이틀간 진안고원치유숲에서 임신부를 위한 환경보건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임신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부 스스로 환경보건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 환경위해요소를 인식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체험했다.

교육 내용은 △환경보건 전문교육 △산전 요가 및 명상 △천연염색 체험 △건강 영양상담 △라돈 저감 원예체험 등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전주캠퍼스 RISE사업단 내·외부 위원 14명 위촉

2025학년도 RISE사업
대학상생 추진 현황 공유

우석대학교는 11일 전주캠퍼스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외부 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1일 전주캠퍼스 RISE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외부 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은 전주캠퍼스 RISE 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2025학년도 RISE사업 및 대학상생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전주캠퍼스 RISE 위원회는 박노준 총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RISE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결산, 정책 및 성과관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 RISE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시점에서 위원분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힘찬 여정을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혁신기관, 산업체가 함께 협력해 청년이 머무는 자생적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번암초 · 동화분교 여름 오케스트라 캠프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장수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장(교장 송미령)은 늘봄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활발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번암윈드오케스트라 여름 캠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캠프를 마친 후, 학생들은 오는 14일 경기도 여주시 세종국악당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발휘하고, 다른 학교와의 경연을 통해 음악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방안 안내

전북교육청, 정보공개
고충민원 업무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창조나래 4회의실에서 하반기 정보공개 및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정보공개 및 민원 담당자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교육은 업무 이해도와 실무 능력 향상,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제·증명 △국민신문고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안내 △친절교육 등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을 강사로 초청해 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을 교육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민원 업무 담당자들은 교육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실무 능력을 키우고,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사례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2기 개강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는 지난 9일 녹색처방전 발급을 위한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과정 2기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력해 3주간 주말 과정으로 총 50시간의 이론·실습·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치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전주기전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무부처의 민간자격증인 그린라이프힐링지도사가 발급된다.

특히 2기 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서울, 부산 등지에서 지원자들이 몰려 총 40명이 신청, 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자연치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개강 첫날부터 활기찬 분위기 속에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 과정은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다양한 자연치유 분야를 아우르며,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앞서 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육과정 만족도 98.90점, 강사 만족도 99.00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의 우수성과 실효성이 입증됐다.

최연우 치유농업과 학과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치유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회복무요원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이해 · 영역별 학생 지원 방법 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2층 강당에서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지원 역량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 학생 활동 지원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내 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처치 방안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 이해 및 장애 영역별 학생 지원 방법 △인권교육 등이다.

김윤미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학생의 교내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원 인력 중 하나"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